

# 콘진원, 싱가포르에 K팝 홀로그램 공연장 개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3일 싱가포르 대표 휴양지인 센토사 섬에 개설한 'K-POP 융복합 홀로그램 공연장'에서 화려한 영상소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 대표 휴양지 센토사 섬에

## 원더걸스·2PM 등 공연

## K팝+문화기술 진출 첫 사례

문화부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최근 싱가포르의 대표 휴양지인 센토사 섬에 해외 최초로 'K-POP 융복합 홀로그램 공연장'을 선보였다. 공연장은 문화부와 콘진원이 국내 콘텐츠 기업의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돕는 '단비 K-CT 프로젝트'의 우수콘텐츠 복합 문화공간 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공연장 구축에는 ㈜SBS플러스와 ㈜홀로티브 글로벌이 참여했다.

센토사 섬은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2배 크기 인공 섬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 대표적인 휴양지다. 공연장이 들어선 리조트 월드센토사는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 ■ 홀로그램 공연

공연무대 상층 부에 있는 기계로 빛을 쏘 그림을 반사하면 무대에 해당 화면이 나타나면 실제 배우가 3D 영상과 함께 공연을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싱가포르 최대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공연장에서는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그룹 '원더걸스'와 '2PM', 'GOT7'의 공연이 홀로그램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기존 홀로그램 공연이 스크린 또는 유리면에 부착하는 투명필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재현해온 것과 달리 이번 공연장은 매쉬(Mesh·그물망) 구조 방식의 홀로그램 소재를 활용해 아티스트의 공연 모습을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해 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문화기술(K-CT)의 우수성을 현지인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연장에는 관람객의 동작이나 반응

을 무대 위 아티스트와 상호 교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적용됐다. 관람객들이 실제 K-POP 스타들을 마주한 것과 같은 작각을 일으키게 하는 가상현실 기술, 즉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시스템을 적용해 재미 요소를 한층 강화시켰다.

K-POP 가수들의 공연 이외에도 우리나라 전통무용과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의 한 장르인 크럼프 댄스(KRUMP dance) 등이 라이브공연과 홀로그램 방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선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이번 공연장은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인 K-POP과 문화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플랫폼

## ■ 센토사 리조트 K-POP 공연장 위치도



의 해외 진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수 콘텐츠 복합문화공간이 한류를 이끄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감사원, 인터넷진흥원 '용역업체 특혜' 적발

## 용역대금 과다지급 등 2건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를 앞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 본부장과 팀장 등 2명은 2013년 12월 '118상담센터' 운영 용역사업(22억8400만원)을 발주, 3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기동사업자인 A사에 특혜를 줬다.

당시 A사가 재평가를 요구하자, 경쟁업체인 B사의 제출실적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1차 평가를 무효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차 평가에서도 B사가 보완해 제출한 실적자료를 평가업무 담당자와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A사에 유리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1차 평가를 담당했던 직원이 '2차 평가에서 B사가 부당하게 감점을 받았다'고 내부 감사를 의뢰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또다시 3차 평가에 들어갔다.

3차 평가에서도 이들은 B사의 실적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A사가 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다. 감사원은 두 사람에게 대해 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과 단장은 '2014년 개인정보 노출검색 및 삭제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한 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모·계약을 어기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기술협상서'를 근거로 개시일 이전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용역개시 이전 대금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면서 2억원 상당을 과다지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두 사람에게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22일 aT와 성균관대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aT, 대학생 해외인턴·취업프로그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성균관대(22일), 한국외대(23일)와 'Good Job, Good people(좋은 일자리, 우수한 인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는 식품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글로벌 인턴십, 우수기업탐방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또 이들 대학은 aT의 인재육성 교육과정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

와 학점교류 등을 진행한다. 김선경(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4학년)군은 "이번 MOU를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aT의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실무경험을 쌓겠다"고 말했다.

aT 유종식 식품수출부서는 "올해는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우수대학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농식품유통교육원, 할랄식품 수출전문가 양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은 오는 3월 9일~10일 경기도 수원시의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되는 '할랄식품 수출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할랄식품 정책과 해외 및 국내 할랄 인증제도에 관해 강의한다. 또 할랄식품의 무역절차와 법규, 할랄

식품 시장의 규모, 할랄인증제도 현황, 이슬람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 등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육대상은 수출농업법인, 농식품제조, 수출업체 임직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한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2만원의 수강료를 내야 한다. 문의 031-400-3527. /오광록기자 kroh@

## 비상시 정전 없게...한전, 공군 비행장 전력망 지중화

전국 공군 비행장에 비상시에 독립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24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과 이같은 내용의 '공군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군 비행장에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비상시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독자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독립 지능형 전력망을 말하며 기존 상용 전력, 신재생 에너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엮어 만드는 시스템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충남 서산 등 4개 비행장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든 비행장의 전력설비를 지중화한다. 전압은 22.9kV로 단일화한다.

정전 없는 전력공급시스템과 종합 상황판을 설치해 제어센터에서 개폐기를 원격 제어하게 된다. 선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하는 배전 지능화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부터는 2단계로 비상시 주요 설비에 전력을 자체 공급하는 발전기(총 용량 45MW)를 설치한다. 제어센터에서 발전기를 원격 감시하고 제어하는 운영시스템도 갖춘다.

1,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ESS를 설치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된다. 기존 전력망과 발전기, ESS가 통합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다음 달 양측 실무자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군 비행장에 특화된 지능형전력망 표준 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다.

한전은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설비 및 시스템 운영과 유지 보수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환익 사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사업은 한전의 최신 기술을 국가 안보 시설에 적용한 최초의 공익형 사업"이라며 "전력기술을 통한 사회 환원과 가치 공유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업 의의를 전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지능형 전력망 구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 한전KPS

##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전KPS는 '크리스탈 KPS'라는 윤리경영 브랜드를 운영하며 이해관계자별 윤리 프로그램 시행, 윤리경영 홈페이지, 윤리경영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립윤리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한전KPS는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 달성,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상용서비스 및 공급업 부문 7년 연속 최우수기업을 달성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